

## 구마가와주쿠: 나칸초

구마가와주쿠는 와카사 지역과 수도 교토를 연결하는 주요 교역로인 와카사카이도를 따라 물자 운송이 활발해지면서 번성한 역참마을이었습니다. 역사가 깊은 구마가와주쿠는 가민초, 나칸초, 시몬초의 3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

### 나칸초

구마가와주쿠의 중심부로, 상업 및 행정 건물이 모여 있는 역참마을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. 거리에는 운반업체, 상점, 숙박시설, 상품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히시야나 구라미야 같은 번성한 도매상이 즐비했습니다. 보존상태가 좋은 건물들은 상업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이 마을의 경제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부유한 상인들이 선호하던 건축양식을 보여줍니다.

구마가와주쿠의 역사 속에서 행정 업무는 주로 나칸초에서 이루어졌습니다. 에도 시대(1603년~1867년)에는 이 지역에 부교쇼(관청)가 있었습니다. 부교쇼는 운송 대리점을 규제하고, 오바마 번의 세금을 관리했습니다. 20세기에는 주요 도로 인근에 구마가와 사무소로서 서양식 건물이 지어졌습니다. 현재 이 건물은 보존자료와 패널 전시 등 마을의 역사 및 운송 중심지 역할과 관련된 다양한 물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와카사 사바카이도 구마가와주쿠 자료관 슈큐바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

나칸초에는 가쿠조지 절, 도쿠호지 절, 마쓰노키 신사, 시라이시 신사 등 여러 사원과 신사가 있습니다. 마쓰노키 신사는 과거 오바마 번이 세금으로 징수한 쌀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 12개의 창고가 있던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근처 기타가와에서 이 창고까지 쌀을 나르기 위해 와카사카이도와 이어진 '오쿠라미치'라는 길을 이용했습니다.